

#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0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1,039천 km <sup>2</sup>	G D P	3,656억 달러 (2012년)
인구	48.17백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7,590 달러 (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796.90 (2012년)

- 콜롬비아는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석유, 석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임.
- 반세기 동안 이어진 반군 무장세력 활동과 마약, 납치,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만연하여 심각한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나, 2002년 우리베(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게릴라 소탕 작전으로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치안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음.
-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어 국제시장으로부터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제성장률	3.6	1.7	4.0	5.9	3.8
재정수지 / GDP	0.5	-2.2	-2.7	-0.7	-0.8
소비자물가상승률	7.0	4.2	2.3	3.4	3.2

자료: EIU.

#### □ 2012년 경제성장률 둔화

- 2011년 콜롬비아는 유럽 경제위기, 홍수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광물의 생산 및 수출 증대, 실업률 하락에 따른 내수 증대, FDI 유입 급증 등으로 5.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2년에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긴축정책, 대외수요 침체,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원유 및 커피의 생산 차질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된 3.8%를 기록함.

####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이내 관리

- 201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회복 및 유가상승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조세제도 개선을 비롯한 재정개혁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축소된 -0.7%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도 -0.8%를 기록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함.
- GDP 대비 정부채무는 '10년 46.2%, '11년 43.4%, '12년 40.9%를 기록하여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준칙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안정 유지

- 금리인상 등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통화정책 집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2~4%) 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가격 안정, 내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미 무역의존도 및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구조

- 2011년 기준 대미 수출비중은 42%, 수입비중은 29%로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큰 편이며, 수출의 70% 이상이 원유, 석탄, 금, 커피 등 1차산품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가격 변동 및 기후변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구조임.
- 2012년 기준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 1차산업 6.8%, 2차산업 38.1%, 3차산업 55.1%로 나타나,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음.

나. 성장잠재력

□ 석탄 및 석유 자원 풍부

- 콜롬비아는 세계 4위의 석탄 수출국으로서, 석탄은 원유에 이어 콜롬비아 제2의 수출품목이며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이 모두 중남미 1위임.
- 콜롬비아는 중남미 6위의 원유 보유국(확인매장량: 약 22.6억 배럴)임. 국토의 50% 정도가 기초탐사가 되어있지 않고 해양석유 및 비전통 석유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다. 정책성과

### □ 친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국제신인도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 우리베(Uribe) 정권(2002~10년) 이후 친시장적이고 건전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FTA,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통해 우호적인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2011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조정함.
- 국제금융공사(IFC)의 Doing Business 2013년 순위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85개국 중 45위를 기록했으며,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칠레, 푸에르토리코, 페루에 이어 4위를 기록함.
  - 특히 세부항목 중 투자자보호 부문 순위는 전체 6위를 기록했으며,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으로 2011년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FDI 유입 증가율(113.4%)을 기록함.

### □ 재정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 추진

- 2011년 콜롬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기업경영비용 절감 및 조세 공정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연금 및 의료시스템 개혁, 석유 로열티 수입을 통한 국부펀드 조성, 도로 및 항구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계약 체결

- 콜롬비아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을 2009년 5월(105억 달러, 1년 만기), 2010년 5월(35억 달러, 1년 만기), 2011년 5월(62억 달러, 2년 만기) 체결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 상 수 지	-6,743	-4,960	-8,759	-9,956	-11,933
경 상 수 지 / G D P	-2.8	-2.1	-3.1	-3.0	-3.3
상 품 수 지	776	2,053	2,038	5,566	5,944
수 출	37,096	32,563	39,546	56,217	60,244
수 입	36,320	30,510	37,508	50,651	54,300
외 환 보 유 액	23,479	24,748	27,766	31,386	36,444
총 외 채 잔 액	46,428	52,120	63,064	70,036	76,062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0	22.3	22.0	21.0	20.8
D S R	16.5	20.8	19.8	18.0	19.4

자료: IMF, EIU, IIF.

#### □ 2012년 총수출증가율 둔화

- 2011년에는 원유, 석탄, 커피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총수출증가율이 39.4%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커피산업 침체 등으로 총수출증가율이 7.8%로 둔화됨.
- 상품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와 콜롬비아 내 다국적기업들의 과실송금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3%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5개월분 수준

- 2011년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4.8개월분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외환보유액 증가 및 수입 증가세 둔화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5.2개월분 수준으로 확대됨.

- FDI 유입 증가, 폐소화 강제 억제를 위한 통화당국의 외환 매입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2012년 5월 정식 발효되어 교역규모와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추이(억 달러): 247.5('09) → 277.7('10) → 313.9('11) → 364.4('12)
-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71.4('09) → 67.5('10) → 133.0('11) → 158.0('12)

□ 외채상환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

-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차입 등으로 외채규모가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FDI 유입액 및 외환보유액 증가세, 낮은 단기외채 비중(15% 수준), IMF와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등으로 단기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2월 콜롬비아 재무부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폐소화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채권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위한 소요 재원을 자국 내 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산토스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 지속

- 집권연정(국가연합사회당, 보수당, 자유당, 급진개혁당, 녹색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산토스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야당 세력이 없는 상황임.
- 산토스 대통령은 2010년 8월 취임 이후 치안강화, 빈곤감축, 고용창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반부패법, 내전 피해자 보상, 교육 및 의료개혁 등 사회안정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 중임.

- 유력한 경쟁후보의 부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14년 5월 실시 예정인 대선에서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상 진전 여부가 향후 산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콜롬비아 정부와 FARC간 평화협상 개시

-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2012년 10월 평화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주요 의제는 농촌 개발, FARC의 정치 참여 보장, 분쟁 종식, 마약 근절, 내전 희생자 보상 등임.
- FARC는 1964년 콜롬비아 공산당의 무장단체로 조직된 마시스트 이념투쟁 기구로서 콜롬비아 우익정부 전복을 위해 각종 테러 및 무장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무장세력은 1980~90년대 세 차례 평화협상을 시도했으나 모두 결렬되었음.
- FARC는 협상 개시 후 2012년 11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휴전을 선언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반군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힘.
- 재임기간(2002~10년) 동안 강력한 반군 소탕작전을 펼쳤던 우리베(Uribe)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정부의 평화협상을 비판하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와 회의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음.
- 2013년 2월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정부의 평화협상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응답자의 67%는 협상 성공에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됨.
- 양측의 입장 차이와 계속되는 무력 충돌 등으로 협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4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2월 양측 협상단은 첫 번째 의제인 농촌 개발과 관련하여 합의 달성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강력한 치안강화 정책으로 반군 무장세력 약화

- 콜롬비아는 지난 50여 년간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민족해방군(ELN), 우익민병대(AUC) 등 반군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안한 치안상황이 지속되었으나, Uribe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강력한 치안강화 정책과 미국의 지원 등으로 최근 반군 무장세력이 약화되었음.
- 2006년 우익민병대가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를 선포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반군조직인 FARC의 최고지도자인 알폰소 카노(Alfonso Cano)가 사살되어 반군조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음.
- 그러나 평화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FARC와 정부간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화협상 참여를 원하는 ELN이 납치, 군경 및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등을 지속하고 있어 치안불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소득불평등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 잠재

- 콜롬비아는 국민의 약 46%가 빈곤층이며 지니계수는 세계 최고수준인 0.58을 기록하는 등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여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실업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0% 이상으로 여전히 중남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약 20%이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고용이 전체 고용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 커피산업과 광업부문의 시위 발생

- 국제가격 하락, 기상 악화, 투자 실패, 폐소화 강제 등으로 커피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2013년 2월 수천 명의 커피재배 농민들이 커피산업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 등 시위를 벌임.
- 또한, 콜롬비아 최대 탄광인 Cerrejon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광업부문에 대한 개발 및 투자 유치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3. 국제관계

#### □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6억~7억 달러의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받고 2009년에는 마약 단속과 게릴라 조직의 소탕을 위해 콜롬비아 7개 지역에 미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 콜롬비아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 조정되었으나 콜롬비아는 중남미 내 미국의 주요 우방국으로 계속 남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콜롬비아-미국 FTA가 2006년 체결되고 2012년 5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어 양국간 경제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과의 관계 개선

- 2008년 3월 에콰도르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콜롬비아군과 FARC의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 정부가 FARC와 긴밀한 연계가 있었음을 명시하는 내부문서가 발견되어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됨.
- 우파성향을 유지해온 콜롬비아 정부는 중남미 지역 내 좌파정권 증가 및 미국에 대응한 역내 결집 등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역내 국가와의 화해·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2010년 8월 산토스 정부 출범 이후 에콰도르의 무관세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던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베네수엘라와는 2011년 10월 3,000km 길이의 석유파이프라인 설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좌파정권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2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카리브해 연안 섬들에 대한 콜롬비아와 니카라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섬 인근 일부 해역을 니카라과 영해로 인정함.

- 이 판결로 해당 해역에 대한 배타적 어업권 및 석유, 가스 채굴권이 니카라과에 귀속되어 콜롬비아 정부가 반발하였으나 양국간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교관계 다변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산토스 정부는 출범 이후 외교관계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주변국인 페루, 칠레와 통합증권시장(Integrated stockmarket) 조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6월 페루, 칠레, 멕시코와 함께 경제통합체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초대 회원국으로 참여함.
- 한국과의 FTA 협상 타결('12.6월),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 중국과의 투자 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양호

- 콜롬비아는 1980년대 초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공적채무에 대해 리스케줄링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외채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으로 평가됨.
- 201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69억 달러(단기 14억 달러, 중장기 55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670만 달러(중장기 670만 달러)로 전체의 0.1%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비중은 미미함.

###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 S&P와 Fitch,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 2011년 S&P(3월, BB+ → BBB-), Moody’s(5월, Ba1 → Baa3), Fitch(6월, BB+ → BBB-)는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일제히 상향조정한 후 현재까지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8월, S&P는 재정개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콜롬비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Stable’에서 ‘BBB-/Positive’로 상향조정함.
- 2013년 3월, Fitch는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반영하여 콜롬비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Stable’에서 ‘BBB-/Positive’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C1	(2013.04)	C1	(2012.08)
OECD	4등급	(2012.06)	4등급	(2011.07)
S&P	BBB-	(2012.08)	BBB-	(2011.03)
Moody’s	Baa3	(2011.05)	Ba1	(2010.09)
Fitch	BBB-	(2013.03)	BBB-	(2012.06)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3월 10일 (북한과는 1988년 10월 24일)

□ 주요협정: 문화협정(1967년), 과학기술협정(1981), 사증면제협정(1981), 무역협정(1985), 이중과세방지협정(2009),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2010)

□ 2012년 6월,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가 2년 6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2년 6월 타결되었으며 2013년 2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

- 양국은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며,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 중인 대부분 품목(품목수 기준으로 한국 96.1%, 콜롬비아 96.7%)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한-콜롬비아 FTA는 2011년 수립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확대, 중남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4> 한·콜롬비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콜롬비아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1,389	1,614	1,468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 입	432	380	415	유연탄, 커피류, 합금철
합 계	1,821	1,994	1,883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2년 교역규모 감소**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8년 12.3억 달러에서 2009년 9.2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10년 18.2억 달러, 2011년 19.9억 달러를 기록하여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대 콜롬비아 수출이 9% 감소하면서 교역규모도 18.8억 달러로 감소함.
-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유연탄, 커피류, 합금철 등 원자재·자원을 주로 수입하여 양국은 상호보완적 무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대 콜롬비아 직접투자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대 콜롬비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2,193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1,258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2,640만 달러, 2011년 5,306만 달러, 2012년 9,261만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12월 말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콜롬비아 직접투자 규모는 총 34건 (신규법인 수), 2억 3,123만 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임.

## V. 종합의견

- 콜롬비아는 최근 경제성장 및 수출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외환 및 물가관리 등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으로 인해 거시경제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산토스 정부는 의회 내 과반수를 확보한 집권연정의 협조를 기반으로 재정 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10월부터 콜롬비아 최대 반군 무장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진행하며 내전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력한 치안강화 정책으로 반군 무장세력이 약화되었으나 완전히 소탕되지 않아 테러, 납치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및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2012년 5월 정식 발효되어 교역규모와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와도 2012년 6월 FTA를 체결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외채상환능력 및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이며, FDI 유입액 및 외환보유액 증가, IMF와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등으로 단기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콜롬비아에 대해 S&P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2011년 이후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전망도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임.

조사역 송호석 (☎02-3779-5709)

E-mail: hssong@koreaexim.go.kr